

2021년 5월 시청자위원회 운영실적

방송국명 : 주식회사 연합뉴스티브이

1. 회의개최

일 시	장 소	참석인원 수		비 고
		위 원	방송국	
5. 25. 15시	화상회의	9명/10명	3명	

- 시청자위원 불참자(1명) 명단 : 이현숙위원
- 방송사 주요참석자 명단 : 이정내(시청자센터장)
성기홍(보도국장), 김가희(심의실장)

2. 심의결과 및 조치현황

가. 의견제시(시정요구) 및 시청자권익보호 등의 논의 안건(건수)

방송 편성	방송프로그램					자체 심의규정	시청자권익 보호 (침해구제)	합계
	보도	교양	연예·오락 (스포츠)	기타	소계			
-	9	-	-	-	9	-	-	9

나. 사업자 반영(건수)

구 분	수 용	의견참고	반 론	합계
건 수	9	-	-	9

다. 의견제시(시정요구)에 대한 조치내용

구 분	의견제시(시정요구)내용	조치내용	제시 월
계	2건	2건	
보도	<p>4월은 과학의 달로서 과학기술 진흥 기관이나 지자체, 학교 등에서 각종 행사를 기획하여 추진하고 있고, 지난 4/21은 과학의 날로서 기념행사를 추진하였으나 이와 관련된 뉴스는 전혀 보도가 되지 않아 아쉬움이 컸음. 과학 꿈나무 육성, 전 국민의 과학화, 과학 기술을 통한 국가 경쟁력 강화 등 차원에서 연합뉴스tv가 각종 행사를 취재하고, 연구현장을 방문하여 보도할 수 있기를 희망하며, 과학기술을 진흥시킬 수 있는 행사나 캠페인 등 뉴스는 찾아볼 수 없어 뉴스 내용 편성 시 이에 대한 배려가 필요함.(문해주위원)</p>	<p>지난 13일 '출근길인터뷰'를 통해서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가 발족한 과학기술특별봉사단의 오승원 본부장을 인터뷰한 바 있습니다. 과학기술 분야에서 이슈가 있을 경우에는 평소에도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만, 기초과학분야에 대한 연구 노력 등에 대해서도 국민의 관심을 높이기 위한 보도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21.5월 조치></p>	'21.4월
보도	<p>연합뉴스TV 스페셜로 '한국기업 발등의 불 ESG에 대비하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최근 ESG(친환경, 사회적 책임, 기업지배구조)가 기업경영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아쉬운 점이 있다면, 본 프로그램에 대한 사전 홍보입니다. 방송직전까지 연합뉴스TV 스페셜로만 표기가 되어 시청자들이 연합뉴스TV스페셜 주제가 ESG에 대한 내용인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향후 연합뉴스TV 스페셜과 같은 정책 방송에 대하여는 방송안 내에 부제목을 함께 달아 주면 국민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만든 특별방송의 홍보확대는 물론 시청률 향상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추문갑위원)</p>	<p><연합뉴스TV 스페셜> 송출시 좌상단에 프로그램명과 해당 편 부제가 20초 간격으로 전환되어 시청자들에게 관련 내용을 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프로그램 홍보를 위해 방송 전 예고편을 제작하여 해당 프로그램의 내용을 적극 알리고 있습니다. 참고로 174회 <연합뉴스TV스페셜 - 한국 기업 '발등의 불', ESG에 대비하라> 경우 예고편이 총 3회 편성되어 송출됐습니다. <21.5월 조치></p>	'21.4월

라. 시청자 권익보호 및 침해구제 '해당사항 없음'

안 건 내 용	조치(개선)내용	비고
-	-	

3. 기타사항

가. 시청자위원회 관련 공개 청구 '해당사항 없음'

요청자(단체)	공개내용	공개방법

나. 상시의견수렴 실적 '해당사항 없음'

상시의견수렴방법	내용

당월 시청자위원회의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에 대한 답변

구 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	답변내용	비 고		
			수용	참고	반론
보도	뉴스 인물의 사운드바이트(육성)가 중간에 잘리지 않도록 했으면 싶다. 뉴스에서 관련 인물의 육성을 내보내는 것은 뉴스의 생동감을 불러일으킨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 그런데 간혹 뉴스 인물의 육성이 완성된 문장으로 끝나지 않은 채 중간에 끝나는 경우가 왕왕 있다. 이렇게 편집을 하는 것은 자칫 뉴스 인물에 대한 예의가 아닐 뿐만 아니라 시청자들에게 뉴스 인물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줄 수 있다. 또한 뉴스가 불완전한 인상을 주기도 한다. 미국과 한국 방송의 평균 사운드바이트 길이는 평균 9초 정도이다. 가능하면 뉴스 인물의	지적하신 내용에 공감합니다. 반복적으로 리포트내 인물 씽크를 가급적 완성된 문장형태로 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다만 관련 내용을 충분히 인터뷰를 하고 사후 원고에 맞춰 씽크를 넣을 때나 공개브리핑 내용중 긴 문장을 모두 넣을 수가 없을 때 등 여러 경우에 부득이하게 문장을 완결하지 못한채 녹취부분을 잘라 편집하는 일이 종종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구 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	답변내용	비 고		
			수용	참고	반론
	사운드바이트를 완성된 문장으로 끝날 수 있도록 편집을 해주어야 한다. 아니면 인터뷰 할 때 9초 이내로 말을 하도록 유도를 하였으면 싶다.(권혁남위원장)				
보도	5. 1 08:29 청년도 외롭다...늘어나는 2030 고독사 관련 보도, 취업난에 코로나19 사태까지 겹쳐 극단적 선택을 하는 청년이 늘고 있어 이를 막기 위한 현실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보도로 그동안 놓치고 있던 사회적 문제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 좋은 보도라고 생각합니다. 통상적으로 청년은 '건강하다'라는 인식으로 고독사하면 노년층에 대한 문제로 여겨진다 생각되었으나 취업난, 경제적 어려움, 1인가구의 증가 등의 이유로 청년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복지혜택은 받기 어려운 현실에 대해 안타까움과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청년 고독사의 문제는 일부에 국한된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고 현실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나오고 있는 만큼 추후 이와 관련한 심층 보도와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박찬재부위원장)	청년 고독사 등 자칫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는 문제를 계속 취재하겠습니다.	○		
보도	4월 16일부터 5월 14일까지 28일 동안 이어진 청문정국에서 정치권에서 나온 여러 가지 의혹으로 인해 언론과 일반 국민들의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았음. 이 기간 중 매 뉴스 시간마다 비중 있게 보도되었음, 동 기간 후보자의 검증이 의혹 제기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정책 전문성이나 자질을 중심으로 이루어지지 못한 것에 대해서 언론(모든 언론)이 냉철한 시각으로 지적하지 못한 점에 대한 아쉬움이 있음, 일부 언론에서는 의	앞으로도 중립적이고 객관적 보도태도를 견지함으로써 첨예한 이해관계가 부딪히는 정치사안에 대해 시청자들이 올바르게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		

구 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	답변내용	비 고		
			수용	참고	반론
	<p>혹을 확대 재생산하여 많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도되었음, 즉 정치권에서 나온 특정 후보에 대한 부정적 표현(예: 여자 조국, 보물섬)에 대해 그대로 인용하였는데, 이를 인용하더라도 후보자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객관적 판단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그러나 연합뉴스tv는 일관되게 객관적 보도 노력을 한 것에 대해 높이 평가함, 여/야 발표내용 및 입장을 인용하여 함께 보도하고, 토론이나 전화 인터뷰 시 여/야 입장을 대변하는 인사가 참석하고 비슷한 발언 기회를 부여하여 그 판단은 시청자 몫으로 한 것으로 판단됨.(문해주위원)</p>				
<p>보도</p>	<p>5/6 01:00 울산발 영국 변이에 대한 설명 중, 감염력이 훨씬 높고, 위험률도 3% 라고 하였으나, 위험률이 치사율인지도 확실히 할 필요가 있고, 다른 바이러스나, 일반 코로나 바이러스와의 비교치를 알려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똥똥하면 코로나 사망 위험률 37% 더 높아진다. 2020년 3.5일: 사스: 10 %, 메르스: 34.4 %, 독감: 0.1~0.18 %, 코로나: 3.4 % 치사율은 사망자에 초점을 맞춘 숫자이다. 5/15일 05:00 백신 생산 등에 대한 보고가 있었으나, YTN 에서는 동시간대 뉴스에서 백신 종류에 대해 그림(3월 제가 간단히 설명함)으로 설명하였으며, 여러 종류의 백신 교차 접종 가능성에 대한 부작용등 외국 통계 및 자료로 설명하여, 미리 예측할 수 있어 의미있는 것 같았다. (정의식위원)</p>	<p>지적해준 내용을 참고해서, 향후 위험도나 치명률 같은 경우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을 함께 제시하고, 그래픽을 통해서 시청자들이 직관적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p>	○		
<p>기타</p>	<p>심층 기획보도인 뉴스프리즘과 연합뉴스TV스페셜은 현안 주요 이슈에 대해 30분정도 심층적으로 보도함으로써 시청자의 이해를 제고하는 매우 유익한 코너임, 예를들어 지난 5/2 방송된</p>	<p>뉴스프리즘과 연합뉴스TV스페셜은 우리 사회의 주요 현안으로 떠오른 내용들을 심층적으로 탐사, 보도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지적사항에 나온 바와 같이 코로나19,공매도 재개, 소멸</p>	○		

구 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	답변내용	비 고		
			수용	참고	반론
	<p>연합뉴스TV 스페셜의 공매도 관련 보도는 공매도 재개 시점에 맞추었다는 점에서 시의적절했고, 주식 관련 전문가가 아니면 알 수 없는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사례와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설명함으로써 쉽게 이해할 수 있었음. 뉴스전달이 기본 미션이기는 하지만 이러한 심층기획보도를 통해 시청자의 이해도를 높이려는 노력은 매우 적절하다고 판단됨, 다만, 기업관련 이슈들을 좀더 많이 다루어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음. 금년 1월부터 5월23일까지 뉴스프리즘과 스페셜 이슈들을 분석해본 결과 기업관련 이슈는 4건 정도 다루어져서 사회문제 15건, 코로나 10건, 부동산 6건 정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었음. 반도체경쟁, 전기차, 수소연료 등 현안이 되고 있는 기업 및 산업 관련 이슈들을 제기하는 특집 프로그램을 기획했으면 함 (유환익위원)</p>	<p>위기 지방대 위기 등 다양한 이슈들을 담으려 노력하고 있으며, 기업관련 아이템으로는 지난 5월9일 방송된 <연합뉴스TV스페셜-친환경.스마트로 도약하는 조선업> 편을 통해 당시 주목받는 국내 조선업의 현황과 도전과제 등을 다루기도 했습니다. 추후 아이템 선정시 기업관련 이슈들도 다양하게 포함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p>			
<p>보도</p>	<p>지난 1개월간의 "문화.연예" 분야의 기사를 검색하여 분석한 결과 역시 제93회 아카데미상 여우조연상을 수상한 윤여정 배우 및 영화 "미나리" 관련 기사가 28건을 차지하여 전체 103건 기사 중 27.2%를 차지했다.이건희 컬렉션' 관련 보도는 '이건희 컬렉션'에 포함되는 작품의 내용이나 수준이 대단히 높고 미술품 조세물납제, 이건희컬렉션 관련 미술관 유치 경쟁 등에 대한 다양한 관점으로 충분히 시청자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크게 이슈가 됨에도 불구하고 깊이 있는 분석이나 집중적인 취재보다는 단지 그 내용을 알리는 데에 그친 것으로 보인다. 문화예술관련 보도는 단순한 내용 소개나 안내에 그치기보다는 현 시대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와 함께 역사적인 기원이나 사회적인 맥락 등을 함께 다룬다면 기사의 가</p>	<p>지적 참고해서 심도 있는 기사작성에 노력하겠습니다.</p>			

구 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	답변내용	비 고		
			수용	참고	반론
	치는 더욱 빛날 것이다. 위의 '이건희 컬렉션' 관련 보도도 미술품 기부에 대한 다른 나라의 사례나 관련정책, 수도권이 아닌 지역의 미술관 유치 경쟁의 내용 및 문화예술의 지역 균형문제 등도 함께 다루면 좋았을 것이다. 다음 달에는 좀 더 깊이 있는 기획과 취재를 통해 수준 높고 유익한 기사를 많이 보게 되기를 바라며 현장 예술가들의 목소리도 더욱 많이 담겼으면 하는 바람을 아울러 말씀드린다.(정경모위원)				
보도	5월13일 '원자재값 고공행진, 국내 제조업체 수익성 비상', 5월16일'2분기 해상운임 사상 최고치, 수출기업 비상', 5월20일 '건설자재 수급불안' 등 최근 원자재 상승에 따른 문제와 관련한 여러 건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과거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그랬지만 이번 코로나 위기도 회복과정에서 경제주체간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실제 원자재 가격이 천정부지로 인상되는데 대기업은 차일피일 미루며 납품단가를 올려주지 않고 있는 기업이 늘고 있고, 단가 조정을 요청했지만 이미 납품한 건은 어쩔 수 없고, 신규오더만 반영해 준다고도 합니다. 원자재 가격은 급등하지만 납품단가에 제대로 반영이 안돼 납품할수록 손해가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연합뉴스TV에서 경기회복 과정에서 발생하는 양극화의 실태와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보도도 함께 다루었으면 좋겠습니다.(추문갑위원)	경제주체간 양극화 현상을 기회가 있을 경우 심층적으로 보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회복 과정에서 대기업 쏠림 현상이 심화되는지 여부도 따져보고 관련 제도 개선 등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취재하겠습니다.	○		
보도	인터뷰를 진행하는 앵커의 질문이 너무 길다는 느낌, [1번지 전화인터뷰] (5월 21일 방송) 5월 21일 보도된 <[1번지 전화인터뷰]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에게 묻는 정국 현	앵커의 질문은 짧게 하고, 당사자는 충분히 발언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		

구 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	답변내용	비 고		
			수용	참고	반론
	안> 코너는 전화로 신현영 대변인과 인터뷰를 하며 3개의 질문을 던지고 답변을 듣는 형식이었는데, 한정된 시간과 질문의 개수 제한 탓이라고 이해되는 측면이 있긴 하지만 앵커의 질문이 다소 길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인터뷰 대상이 직접 방송에 출연하거나, 답변하는 장면을 시청자들이 화면으로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전화기를 통해 답변하는 목소리만 들을 수 있는 상황인 만큼 질문하는 앵커의 질문이 길어지면, 그에 따라 답변자의 답변도 길어져 시청자들이 질문과 답을 이해하는데 다소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우려됩니다. 질문 개수를 4개나 5개로 1~2개 늘리더라도 앵커의 질문을 지금보다 조금 짧고 명료하게 한다면 인터뷰 대상의 답변이 시청자들에게 더 잘 전달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세한위원)				
보도	5월 11자 오후 12시 [센터뉴스],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과태료 인상 外 끊이지 않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고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이런 '불법 주·정차'입니다. 오늘부터(11일)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차량들에 대한 처벌이 보다 강화되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주·정차 금지 위반 경우 이제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불법 주·정차 과태료와 범칙금이 일반도로의 3배로 인상된다는 내용을 전달했습니다. 승용차는 기존 8만원 ⇒ 12만원, 승합차와 4톤 초과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등은 9만 원 ⇒ 13만원 인상 연합뉴스TV 홍정원기자의 멘트가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스쿨존의 주인은 자동차가 아닌 어린이란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5월 어린이	<센터12>의 '센터뉴스'와 <뉴스워치>의 '그래픽뉴스'는 각 프로그램의 대표 코너입니다. 놓치기 쉬운 정보나 당일 이슈 등을 알기 쉽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중입니다. 보다 충실한 코너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		

구 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	답변내용	비 고		
			수용	참고	반론
	교통안전 관련 뉴스의 그래픽뉴스도 좋았고 내용도 좋았습니다.(천경숙위원)				